

2012년 2월
교육학석사(음악교육)학위 논문

중2 음악교과서의 국악작곡 영역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편 란 이

중2 음악교과서의 국악작곡 영역연구

Studies on the composition field of Korean classical music
in the music textbooks of middle school 2nd grade

2012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편 란 이

중2 음악교과서의 국악작곡 영역연구

지도교수 박 계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음악)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편 란 이

편람이의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이 한 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 지 현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박 계 인

2011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3. 연구 범위	4
II. 이론적 배경	6
1. 창작 학습의 중요성	6
2. 창작 지도의 주의점	7
3.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	7
III. 개정 전·후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 비교	13
1. 개정 전·후 내용 체계의 차이점	13
2. 개정 전·후 국악 영역 분포도	15
IV. 중2 음악 교과서의 국악작곡 분석.....	21
1. 제7차 교과서의 국악작곡 분석	21
2. 개정 교과서의 국악작곡 분석	24
V. 결론	46
참고문헌	48

표 목 차

〈표 1〉 7차 교육과정 중학교 교과서 목록표	5
〈표 2〉 개정 7차 교육과정 중학교 교과서 목록표	5
〈표 3〉 음악과 교육 과정에서 국악부분에서 이해 부분	9
〈표 4〉 음악과 교육 과정에서 국악부분에서 활동 부분	10
〈표 5〉 창작 교육의 세부 내용	11
〈표 6〉 교육부 지침 제7차 교육과정과 개정 교육과정안의 '성격' 비교...	13
〈표 7〉 개정 전후 교육과정 음악과 내용체계 비교	14
〈표 8〉 7차 교육과정 교과서별 국악과 양악의 분포도(%)	15
〈표 9〉 개정 7차 교육과정 교과서별 국악과 양악의 분포도(%)	15
〈표 10〉 7차 교과서별 국악과 양악의 분포도	17
〈표 11〉 개정 7차 교과서별 국악과 양악의 분포도	17
〈표 12〉 7차 교과서별 국악과 양악의 분포비율(%)	18
〈표 13〉 개정 7차 교과서별 국악과 양악의 분포비율(%)	18

그림 목 차

〔그림 1〕 7차 교과서와 개정 교과서의 양악과 국악 비율 (%)	16
〔그림 2〕 7차 교과서와 개정 교과서의 영역별 증감내역	9
〔그림 3〕 법문사 서양 창작 예시	8
〔그림 4〕 법문사 서양작곡-가락짓기	7
〔그림 5〕 법문사 국악 토론부분	8
〔그림 6〕 법문사 국악 창작 악기 연주 부분	8
〔그림 7〕 대한교과서 서양 가락 짓기 예시	9
〔그림 8〕 대한교과서 화음 가락 작곡 예시	9
〔그림 9〕 대한교과서 국악 창작 부분 - 개사	3
〔그림 10〕 더텍스트 국악 가락짓기와 단소 연주	2
〔그림 11〕 더텍스트의 서양 음악 관현악 악보	3
〔그림 12〕 더텍스트의 서양 작곡 부분 - 예시	3
〔그림 13〕 성안당 서양 음악 가락 짓기	4
〔그림 14〕 성안당의 랩음악 만들기	5
〔그림 15〕 성안당의 5음계를 이용한 가락짓기	5
〔그림 16〕 성안당의 변형 장단	6
〔그림 17〕 금성출판사의 국악 가락 짓기	7
〔그림 18〕 금성출판사의 단조에서 장조로 변형	8
〔그림 19〕 현대음악의 변형 장단 부분	9
〔그림 20〕 현대 음악의 민요 가락 짓기	4
〔그림 21〕 현대 음악의 국악 정간보 옮기기	11

[그림 22]	현대 음악의 장조 단조 가락 짓기	24
[그림 23]	현대 음악의 랩음악 만들기	34
[그림 24]	태성의 서양 가락 짓기 부분	44
[그림 25]	태성의 두도막 가락 짓기	54

ABSTRACT

Studies on the composition field of Korean classical music in the music textbooks of middle school 2nd grade

Nan-Yi Pyun

Advisor : Prof. Kay Pahk

Major in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Curriculum in music education is persistently being reviewed and revised to graft Korean traditional music and to interest student. Curriculum for middle school, through 7-times revisions, is strengthening Korean traditional music education and current textbooks which reflect it has been already published recently.

However, still further researches are under way at field about how Korean traditional music class should be appropriately allocated and operated with Western music, especially researches about appreciation of Korean traditional music have been progressed considerable portion, yet the same about creation field such as composition is quite few. In music education, we need to pay more attention in creation field like composition for the students to improve understanding ability and to induce them actively participating in music education, and to pave the way to be an excellent Korean traditional musician in future.

Therefore, the arrangement and theory input status of Korean traditional music compositions and western music compositions in current curriculum were analyzed especially centering on music textbook for middle school 2nd grade and desirable improvement

direction was sought. It has been examined with focus on whether issues from the 7th curriculum have been reflected on the 7th revised music text books for middle school.

Even though importance of traditional music is more emphasized in current revision plan than previous versions, the weight of practical playing, music composition, and music appreciation is all the way less. On the basis of study, the class that contains field of student's actual participation and learning such as instrumental music or creation need to be strengthened and further we need to get more experience in understanding and playing Korean traditional music as itself at entire national level not just listening and enjoying them.

For this purpose presented above, research was carried out with the procedure below. First of all, the revised contents in the 7th curriculum we relooked into at Korean traditional music and western music considering the weakness and strength. Comparison and analysis were performed with present music textbooks for 2nd grade middle school throughout different published textbooks to analyze whether those issues are sufficiently reflected in the current textbooks and through the above process, improvement direction of curriculum revision in future was proposed.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전통음악이란 그 민족의 고유한 전통문화이다. 전통음악 교육은 배우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통음악의 특징을 이해하고 직접 경험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음악에 담긴 우리 고유의 정서와 가치를 알아가고 우리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민족성을 배우는 것이다(김효선, 2008:24).

우리 고유의 전통음악은 시대의 변천과 함께 점차 현대를 사는 우리의 정서에도 깊은 영향을 주는 보편적인 음악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도 우리의 전통음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여 학교에서도 우리 음악에 대한 지도를 계속하고 있다. 또한 최근 개정안에서도 우리 음악인 국악 교육의 체계화를 위해 제7차 교육 개정안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결실이 반영되었다(김선경, 2006:30). 이를 통해 우리의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을 접하여 우리의 음악문화 유산과 다른 나라의 음악문화 유산을 비교하여 각 음악문화의 음악적 특질과 그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이해함으로써 우리의 음악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새로운 음악문화 창달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음악에서는 크로스오버가 나타나는 등 음악의 장르를 넘어 서로를 보완하면서 상호 발전해 나가는 상황에서 음악의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음악 교육에서도 기존의 양악의 획일적인 교육을 벗어나 국악의 비중을 늘려 우리 음악인 국악의 세계화에도 준비하고 있다. 이에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교 음악을 보다 체계화하고 정교하게 다듬어 당대의 음악적 가치와 교육적 염원을 담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 시대의 음악 교육의 지표가 되는 최종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요구가 반영된 제7차 교육 과정의 교과서를 분석하고 개정된 중학교 교과서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도 해방직후의 교수요목 시기를 거쳐 '1954년부터

1963년까지 시행된 제1차 교육과정'에서 시작되어 '1997년 9부터 시행된 제7차 교육과정', 그리고 현재의'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체제와 내용면에서의 변화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렀다. 이러한 교육과정 개정은 각 시대의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함이었으며 이는 곧 그동안의 한국 사회가 사회적 문화적 혹은 시대적으로 변화를 거듭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김아름, 2009:40).

학교에서 음악 교육이 의미 있게 되기 위해서는 음악 자체를 위주로 하는 활동 중심의 수업이 되어야 한다. 음악 교육은 음악 개념의 이해나 기능 습득보다는 '음악하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화음이나 리듬과 같은 기본 개념이나 기능 습득은 독립적으로 학습될 무엇이라기보다, '음악하기'의 한 연장으로서, 그 필요에 의해서 습득될 수 있을 것이다. 음악을 듣고, 노래부르고, 악기를 연주하며, 음악을 만드는 등의 '음악하기' 중심의 음악 교육이 되어야 하며, 음악 개념이나 기능은 이러한 음악 활동을 위하여 도입될 때 가장 음악적인 수업이 될 것이다.

음악과 교육과정은 문제 해결력과 높은 수준의 사고력을 강조한다.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한 창의적인 사고력과 표현력은 음악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을 기른다. 자신의 생각을 끌어내며 스스로 학습에 참여하고, 학교 밖에서 경험하는 음악의 세계와 관련을 지어 통합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감상과 창작활동을 통하여 음악성과 창의성을 기른다. 감상활동을 통하여 음악 요소의 특징과 그 생성원리를 이해하여 음악 작품에 내재한 미적 특성과 의미를 발견하고 음악의 본질적 특성을 통찰하는 것이다. 또한 창작활동을 통하여 음악의 본질을 더욱 잘 이해하게 됨으로써 창의성과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된다.

음악교과의 평가는 교육과정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지고 수업의 한 부분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음악과의 경우 음악이 가지는 본질적인 특성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 도구와 방법이 어렵지만 소홀히 할 수 없는 음악과의 중요한 영역이다. 수행 평가와 같은 새롭고 다양한 평가방법과 평가도구의 개발을 통한 음악

과 평가가 이루어지고, 학습의 개선을 위하여 활용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국악의 내용을 살펴보고, 음악에서 창작과 작곡 분야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제7차 교육과정에서 분석한 결과가 최근 개정 교과서에 반영되었는지를 분석하고 국악 작곡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위해 중학교 2학년 교과서를 출판사별로 국악 작곡 부분과 서양 작곡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분석된 결과를 가지고 서양 작곡에 비해 국악 작곡이 가지는 문제점과 개선점을 찾아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국악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중학교 음악은 초등학교에서 다루어진 기초적인 음악 개념을 바탕으로 심화된 음악개념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악곡과 음악활동을 통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둔다”는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여 제7차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음악과 교육과정을 비교하였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인 활동이해, 생활화 영역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였으며, 특히, 창작 영역을 집중적으로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교육부, 1998:28)

또한, 개정 전·후의 중학교 2학년 음악교과서 17종을 참조하였으며, 제7차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을 각 교과서별로 서양작곡과 국악작곡의 비율과 내용을 분석하였다.

우리의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대, 양식, 문화권의 음악을 접하여 우리의 음악적 문화 유산과 다른 나라의 음악적 문화 유산을 비교하여 각 음악 문화의 음악적 특징, 그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이해함으로써 우리의 음악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새로운 음악 문화 창달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그 중 음악교육에서 강조하는 내용들은 감상교육의 중요성과 음악의 생활화, 감상 교육을 통한 기초적인 음악 활동, 생활과 음악의 관련성과 전통 음악의 활성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즉 음악의 생활화를 통해 즐기면서 가까이할 수 있는 음악 생

활을 추구하는 경향이다.

또한 우리 음악 문화의 창달을 위해 국악 교육, 학습자의 관심, 흥미, 필요, 요구와 시대적, 문화적 상황에 조화롭게 반영하여 학습자 중심의 교육 과정을 구성, 문제 해결력과 창의성 신장을 위한 음악 교육, 정보화 시대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과 자료를 개발하도록 하며 타당성 있는 음악과 평가는 각 학생이 일정한 기준에 얼마나 도달하는지 개인차를 고려한 개개인의 진전 과정을 대상으로 평가는 수업의 주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학습 과정으로부터 격리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최근 음악 교과 교육과정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이니 10개 학년을 하나로 묶어 일관성 있고, 포괄적이고, 연계성을 가지도록 구성하였으며, 중학교는 계열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고 다양한 음악 활동에 적용해 보는 기회를 더욱 강화하였다. 또한 음악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해와 활동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각 시대의 악곡과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하여 음악의 이해를 꾀함으로써 두 영역이 통합적으로 학습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학교에서의 음악교육이 의미있게 되기 위해서는 음악 개념의 이해나 기능 습득보다는 음악하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특히 최근 음악과 교육 과정에서는 음악을 듣고 노래 부르고, 악기로 연주하며 음악을 만든다는 등의 음악하기 중심의 교육이 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음악과 내용 구성에 있어서는 필수 학습 요소에 대한 활동을 중심으로 학습량을 최적화하여 선정하고 그 수준과 범위를 적정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문제 해결력과 창의력 개발을 위하여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과 수행 평가를 도입하였다.

3. 연구 범위

본 연구에서는 제7차 교육 과정의 활동 부분을 먼저 살펴보고 그에 따라 현행 교과서의 창작 또는 작곡 영역에 대한 교과서별 비교를 실시하여 이전 개정안과의 비교 및 현행 교과서 자체의 비교를 실시한다. 제7차 교육 과정의 분석 결과가 최근 개정안에 반영되었는지를 비교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제

7차 교육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최근 교과서의 창작 영역을 분석하여 창작 분야라도 최근 개정안이 제7차 교육 과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내용은 첫째로는 각 교과서별 작곡 영역의 형태를 분석하였고 특히 가락 짓기나 창작 영역의 비율을 살펴보고 다음으로는 서양 작곡과의 비교를 통해 국악의 작곡 비중과 그 형태를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중학교 교과서 종류는 아래의 표와 같이 7차 교육과정 9종, 개정 7차 교육과정 8개의 교과서를 사용하였다(<표1>,<표2> 참조).

<표 1> 7차 교육과정 중학교 교과서 목록표

번호	출판사	저자
1	교학연구사	조창제
2	도서출판 태성	서한범 외
3	동진음악출판사	김준수 외
4	성안당	김영재 외
5	세광음악출판사	고춘선 외
6	(주) 두산	김향정 외
7	아침나라	문진 외
8	지학사	김영희 외
9	천재교육	김은하 외

<표 2> 개정 7차 교육과정 중학교 교과서 목록표

번호	출판사	저자
1	법문사	김정숙 외
2	대한교과서	장기범 외
3	더텍스트	김미숙 외
4	성안당	정유희 외
5	(주)금성출판사	양종모 외
6	현대음악	윤경미 외
7	도서출판 태성	주대창 외
8	세광음악출판사	고춘선 외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출판사별 교과서는 위와 같으며 번호의 순서는 무순위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창작 학습의 중요성

음악활동은 여러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각 영역의 다양한 활동이 함께 진행되고 학습되었을 때 음악적 개념과 소양이 길러진다고 할 것이며 창작 특히 작곡 분야에 대한 활동과 학습은 이전에 실시된 모든 학습 내용과 경험을 적용해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음악 활동의 개념이 확실하게 정립된다고 할 것이다.

창작 학습의 필요성은 창작 자체가 음악 교육의 종합체이며 학습 동기와 평가에 대한 강력한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창작은 인간만이 갖는 음악적 사고의 결실이며 이는 언어나 기타 다른 제스처로 표현되지 않으며 반드시 소리를 통해 전달되며 우리에게는 가창, 기악, 합창 등과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다양성은 꾸준한 학습과 계발을 통해 창의성으로 표출될 것이며 따라서 우리 음악 교육에서도 다른 부분에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유상철, 2010:13).

또한 음악 창작인 작곡을 매우 어렵게 생각하여 접근성이 없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것으로 간단하며 쉬운 형태에서 시작하여 작은 수의 악기와 짧은 가락으로 표현한다면 똑같은 가락이라도 다양한 악기를 통해 연주될 때 전혀 다른 음악으로 나타날 수 있어 교육적 효과 또한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간단한 작곡이라고 하더라도 스스로 음악 학습에 참여하고 스스로 연주하지 않더라도 친구들과 함께 연주하거나 친구들의 연주를 듣는 것으로 학습의 동기를 유발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작곡을 통해 학생의 음악 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할 수 있고, 자신이 부족한 점과 서로 토론을 통해 보다 나은 곡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도 있으므로 학습 지도의 가이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창작 지도의 주의점

음악활동에서 창작 특히 작곡은 악기의 선택과 음악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와 향후 음악을 대하는 모습까지 변화시킬 수 있어 성급한 학습의 독려보다는 관심이 필요하다. 창작 지도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창작된 곡에 대한 성급한 지적과 수정이 아니라 자신의 곡을 자신이 계속해서 시간을 가지고 표현하는 데 있을 것이다. 충분히 시간이 주워진다면 여러 형태로 생각하고 본인 스스로가 곡의 변화를 줄 수 있어 향후 평가에서도 만족감이 높아지고 자긍심도 높아질 것이다(류선희, 2007:20).

따라서 성급한 비판과 교정은 창작에서 지도하는 사람의 취향이 맞게만 방향이 설정될 수 있으며 음악에서 중요한 다양성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창작에만 너무 집중하기 보다는 여럿이 함께 연주하고 평가해 보면서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학습하면서 다른 영역과의 통합 교육에도 큰 힘이 될 것이다.

3.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

최근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에서는 21세기의 정보화 세계화 다양화 시대 속에서 우리의 음악 문화를 창조하고 이끌어 가기 위한 국악을 강조하였다. 국악 학습에는 학년 수준에 적절한 필수 학습 내용과 활동을 선정하고 포괄적인 음악적 기능을 기르기 위한 전통 음악 내용을 선정하여 상세화하였다. 또 우리의 음악 문화유산과 다른 나라의 음악 문화 유산을 비교하여 각 음악 분야의 음악적 특징과 그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이해함으로써 우리의 음악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새로운 음악 문화 창달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먼저 살펴볼 제 7차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활동 부분은 가창, 기악, 창작, 감상으로 나뉘어지는데 다양한 음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필요하지만 중학생이라는 음악을 구체적으로 접하는 시기에는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악 영역과 창작 영역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음악과 교육과정중 국악부분의 내용은 7차 교육과정에서 이해영역과 활동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해영역과 활동영역 외에 생활화 영역이 추가되었다. 이해 부분에서는 아래와 같이 7개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나뉜다. 첫째는 리듬 영역으로 여러 가지 장단, 변형 장단 등을 다루고 있으며, 둘째는 가락 영역으로 민요 음계와 시김새를 담당하고 있으며, 셋째는 화성으로 여러 성부의 어울림과 가락과 화음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넷째는 형식 부분에서는 긴 자진 형식,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형식, 성악, 기악곡을 다루고 있으며, 다섯째는 썸여림 영역에서는 썸여림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으며, 여섯째는 빠르기 부분으로 그 변화에 관한 내용이며, 마지막으로는 음색 영역으로 민속악기, 여러 가지 창법에 따른 목소리, 여러 가지 주법에 따른 악기 소리를 담당한다(〈표 3〉 참조).

〈표 3〉 음악과 교육 과정에서 국악부분에서 이해 부분

구분	내용체계	내용
이해 부분	리 듬 -여러가지 장단 -변형장단	-다양한 악공에서 사용되는 여러 기본 장단은 물론 그의 변형 장단까지 개념을 이해하도록 한다 -서양음악과 우리나라 음악에서 보여주는 박자와 장단, 이에 따른 리듬 꼴을 실제로 표현해보며 이에 대한 특징을 비교하여 학습한다
	가 락 -민요음계 -시김새	-각 학년에 맞는 민요를 지도하고 전통 음악의 특징인 시김새를 이해시키고 자기 지방의 민요를 우선적으로 다루어 본다 -지방별로 구성음과 가락의 진행되는 방향이 다르며, 떠는 소리, 꺾는 소리, 밀어 올리거나 끌어내는 소리가 있음을 실제적으로 표현해 본다
	화 성 -여러 성부의 어울림 -가락과 화음과의 관계	-국악곡에서 가락과 화음이 얼마나 잘 어울려 조화를 이루는 가를 들어보고 연주한다
	형 식 -긴 자진 형식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 형식 -성악곡 -기악곡	-성악곡,감상곡,기악 연주곡 등의 형식을 음악 감상을 통하여 그 특징을 이해한다 -음악사와 연관을 지어 각 시대별,문화별,지역별에 따른 음악적 특징들을 이해한다
	셈 여 림	-셈여림의 조화 -곡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셈여림의 변화
	빠 르 기	-빠르기의 조화 -곡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빠르기의 변화
	음 색	-민속악기 -여러 가지 창법에 따른 목소리 -여러 가지 주법에 따른 악기 소리 -판소리나 민요에서 떠는 소리, 꺾는 소리, 밀어 올리거나 끌어 내리는 소리 등 여러 가지 창법에 따른 목소리를 이해한다 -전통악기의 주법에 따른 악기소리를 이해한다 -악곡의 성격과 음색의 관계를 이해한다

활동부분에서는 첫째로 가창 영역으로 바른 자세, 호흡, 발성, 악곡의 특성을 살려 창의적으로 부를 수 있는지를 검토하며, 둘째로 기악 영역에서는 바른 자세, 주법, 좋은 음색으로 연주하기, 일정 기준에 따른 평가 등을 담당하고 있다.(<표 4>.참조)

<표 4> 음악과 교육 과정에서 국악부분에서 활동 부분

구분	내용체계	내용	
활동 부분	가창	-바른 자세, 호흡, 발성으로 -악곡의 특성을 살려 창의적으로	-전래동요나 민요를 부를 때에는 되도록 전통적인 발성 방법을 따라서 해 보거나 시김새를 살려서 불러 본다
	기악	-바른 자세, 주법, 좋은 음색으로 연주 -음악요소를 이해하여 창의적으로 연주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	-우리나라의 다양한 소리와 표현력을 가진 연주 경험을 통해 음악의 즐거움을 체험하고 음악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창작	-가사에 어울리는 곡 만들기 -음악의 요소를 이해하여 간단한 형식의 곡 만들기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	-가사에 어울리게 전통가락을 만든다 -장단에 어울리는 가락과 가사를 만든다 -만든 곡을 노래와 악기로 발표하여 표현력의 향상과 성취감을 느끼게 하고 연주를 듣고 느낀 점을 평가하도록 한다
	감상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악곡 형식을 이해 -다양한 악기 소리와 목소리의 조화를 이해	-가야금 협주곡, 사물과 관현악협주 등의 연주 형태를 통해 감상곡의 다양한 연주 형태를 보여준다

다음으로 셋째는 창작 영역에서 가사에 어울리는 곡 만들기, 음악의 요소를 이해하며 간단한 형식의 곡 만들기, 일정한 기준에 따른 평가를 보여주고

있으며, 넷째로는 감상 영역으로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악곡 형식을 이해하며 듣기, 다양한 악기 소리와 목소리의 조화를 이해하며 듣기 등을 나타낸다(〈표 5〉. 참조)

<표 5> 창작 교육의 세부 내용

	1학년	2학년	3학년
리듬과 가락을 즉흥적으로 표현	리듬과 가락을 만들어 즉흥 연주한다.	좌동	좌동
주제 변주하기	배운 곡을 변화시킨다	주제를 변주한다	좌동
간단한 형식의 곡을 만들어 보기	가사에 어울리는 가락을 만든다.	가사에 어울리는 곡을 만든다.	좌동
	음악의 요소를 이해하여 간단한 형식의 곡을 만든다.	좌동	좌동
	곡에 어울리는 반주를 만든다.	곡에 어울리는 기악 반주를 만든다.	좌동
5음으로 구성된 전통 가락 짓기	음악의 요소를 이해하여 간단한 형식의 곡을 만든다.	좌동	좌동
	곡에 어울리는 반주를 만든다	곡에 어울리는 기악 반주를 만든다.	좌동
악기와 목소리를 선택하여 표현하기	악고의 특징에 맞게 악기와 목소리를 선택하여 곡을 만든다.	악고의 특징에 맞게 악기와 목소리를 선택하여 창의적으로 곡을 만든다.	좌동
만든 곡을 듣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	만든 곡을 발표한다	좌동	좌동
	만든 곡을 듣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좌동	좌동

‘리듬, 가락을 만들어 즉흥 연주하기’는 초등학교에서 습득한 간단한 형식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리듬이나 가락으로 표현하는 활동이며, ‘배운 곡을 변화시키기’는 제재곡에서 배운 리듬, 가락, 화성, 빠르기, 셈여림, 음색 등의 음악적 요소를 변화시켜 연주하는 활동을 말한다

창작활동을 살펴보면 첫째, 가사에 어울리는 곡 만들기과 음악의 요소를 이해하며 간단한 형식의 곡 만들기과 두가지 모두 창의적인 곡을 만드는 활동으로서 작곡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반주만들기와 악기나 목소리를 선택하여 곡 만들기’를 제시하고 있는데 반주 만들기는 이해 영역의 화성과 관련된 활동이며, 악기나 목소리를 선택하여 곡 만들기는 악곡의 분위기와 특징을 파악하여 자신의 느낌에 따른 표현 능력을 기르는 활동이다. 셋째, ‘만든곡 듣고 평가하기’는 자신이 만든 곡이나 친구들의 작품을 노래나 악기로 연주하고 들음으로써 흥미와 성취감을 느끼도록 하였으며, 또한, 만든 곡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각자가 평가하여 표현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이다.

III. 개정 전·후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 비교

7차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음악과 내용이 내용 체계 면에서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으며 세부적으로 어떠한 항목들이 제시되었는지 분석하고 생략되거나 추가된 항목과 동일한 내용을 다른 항목들에 한해 함께 분류하여 비교하고 분석하였다.(<표 6>)참조

1. 개정 전·후 음악과 내용 체계의 차이점

<표 6> 교육부 지침 제7차 교육과정과 개정 교육과정안의 '성격' 비교

7차 교육과정	개정 교육과정
①음악과 교육의 목적 -음악적 잠재력 및 창의성 계발, -음악을 통한 감정과 생각 표현 -삶의 질 향상 및 전인적 인간 육성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의 음악 이해와 애호 -음악을 즐기는 태도의 함양	①음악의 본질(의미와 가치) -음악은 사람의 느낌과 생각을 소리를 통해 표현하고 향수하는 예술 -음악 활동을 통한 미적 경험, 즐거움 제공 -음악성과 창의성 계발 -음악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의 인식 으로, 자아실현의 가능성과 삶에 관한 이해의 폭 증진
②음악과 교육의 성격 -다양한 악곡 경험을 통한 음악개념 이해 -음악 활동을 통한 창의적 표현력과 사고력 향상	②음악교과의 성격과 중점 -성격: 다양한 음악적 경험 제공, 음악 활동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 및 음악성 증진, 풍부한 음악적 정서함양, 음악의생활화 바탕 마련

〈표 7〉 개정 전후 교육과정 음악과 내용체계 비교

분야	활동					이해	생활화
	표현	가창	기악	창작	감상		
7차 교육과정		○	○	○	○	○	
개정 교육과정	○	○	○	○	○	○	○

개정 전과 후의 교육과정은 내용과 체계면에서 몇가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제7차 교육과정은 이해와 활동 두 영역으로 구분해서 제시한 반면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활동, 이해, 생활화의 세영역으로 제시하였으며 생활화를 한 영역으로 따로 분리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이해와 활동의 두 가지 영역으로만 나누어져있고 활동영역안에서 생활화의 내용이 소극적으로 제시된 반면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음악의 생활화를 음악교육의 목표로 제시하며 생활화 영역을 강조하였고 교육과정 내용 체계도 활동, 이해, 생활화의 세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둘째 활동영역의 하위 영역의 가짓수가 달라졌다. 제7차 교육과정의 활동영역은 ‘가창’, ‘기악’, ‘창작’, ‘감상’의 네가지 영역이며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표현하기’, ‘노래부르기’, ‘악기연주하기’, ‘음악만들기’, ‘감상하기’의 다섯가지 영역으로 제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활동영역의 하위영역을 칭하는 용어가 달라졌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사용한 ‘가창’, ‘기악’, ‘창작’, ‘감상’의 용어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노래부르기’, ‘악기연주하기’, ‘음악만들기’, ‘감상하기’의 용어로 대체하여 사용되었다. (〈표 7참조〉)

2. 개정 전·후 국악부분 영역별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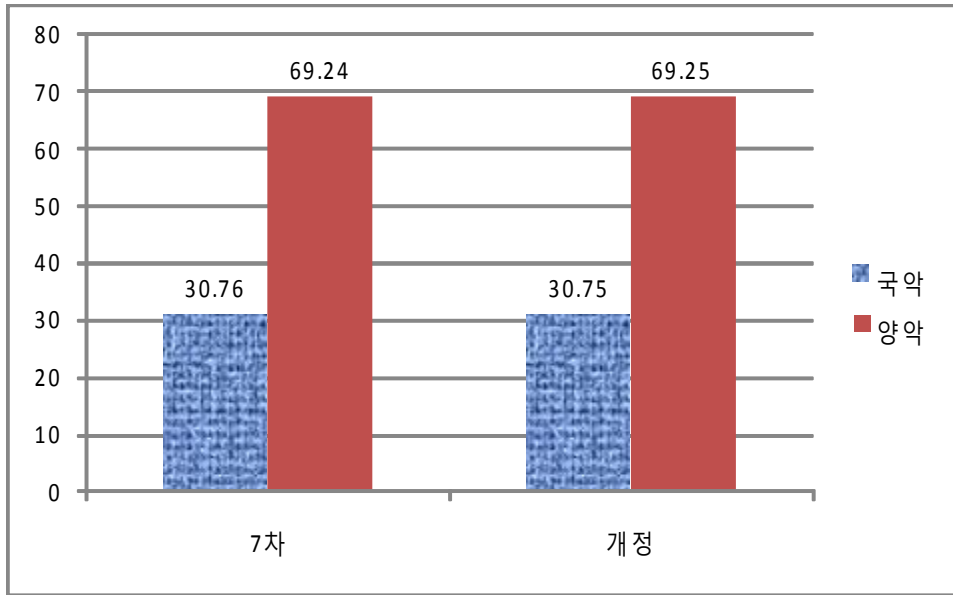
우선 제7차 교육과정과 개정 교육과정에 수록된 교과서별 국악과 양악의 분포도를 살펴보았다. 우선 중학교 전체 교과서에서 국악 대비 서양 음악의 분포를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8〉,〈표 9〉 참조).

〈표 8〉 7차 교육과정 교과서별 국악과 양악의 분포도(%)

출판사 영역	교학사	태성	동진	두산	세광	아침 나라	지학사	천재 교육	성안당	계
국악	36.36	25.00	27.27	25.00	32.00	39.13	34.78	31.03	25.92	30.76
양악	63.64	75.00	72.73	75.00	68.00	60.87	65.22	68.97	74.08	69.24

〈표 9〉 개정 7차 교과서별 국악과 양악의 분포도(%)

출판사 영역	금성	더텍스트	미래	법문사	성안당	세광	태성	현대음악	계
국악	23.80	37.50	29.54	15.38	30.00	33.33	30.76	45.71	30.75
양악	76.20	62.50	70.46	84.62	70.00	66.67	69.24	54.29	69.25



[그림 1] 7차 교과서와 개정 교과서의 양악과 국악 비율 (%)

7차 교육과정과 개정 교육과정 전체적인 교과서에서 국악이 차지하는 비율은 7차 교육과정이 30.76%이고, 개정 교육과정이 30.75%로 미세하게 줄긴 했지만 거의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7차 교육과정의 교과서별 국악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해본 결과 ‘아침나라’가 39.13%로 가장 많았고, ‘태성’과 ‘두산’이 25%로 가장 적었다. 이는 교과서별 국악이 차지하는 비율 차이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2007년 개정된 교과서에서는 ‘현대음악’이 45.71%로 거의 절반을 차지한 반면 ‘법문사’는 15.38%에 불과하여 교과서별 국악이 차지하는 비율이 3배까지 차이나는 현상이 나타났다.([그림 1]참조)

다음은 세부적으로 각 출판사별 국악 부분에 대해서 살펴본다.

7차 교육과정과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음악 교과서 제재곡에 제시된 국악 내용을 중심으로 이해 및 활동 영역을 각 제재곡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10〉,〈표11〉)

〈표 10〉 7차 교과서별 국악과 양악의 분포도

7차 교과서	활동				이해
	가창	기악	창작	감상	
교학사	6	2	2	3	5
동진음악출판사	6	3	1	5	2
두산	7	0	1	4	1
성안당	6	2	1	3	3
세광음악출판사	9	7	1	1	2
아침나라	8	0	3	4	5
지학사	7	4	3	6	6
천재교육	5	1	0	3	6
태성	5	3	1	3	6
평균	6.56	2.44	1.44	3.56	4.00

〈표 11〉 개정 7차 교과서별 국악과 양악의 분포도

개정 교과서	활동				이해	생활화
	가창	기악	창작	감상		
금성출판사	9	4	1	8	1	0
더텍스트	14	4	3	5	4	4
미래엔컬처그룹	6	2	1	5	8	0
법문사	6	2	2	3	4	2
성안당	15	3	2	9	8	1
세광음악출판사	10	3	2	9	3	1
태성	6	1	0	8	4	1
현대음악	15	3	3	9	8	1
평균	10.13	2.75	1.75	7.00	5.00	1.25

〈표 12〉 7차 교과서별 국악과 양악의 분포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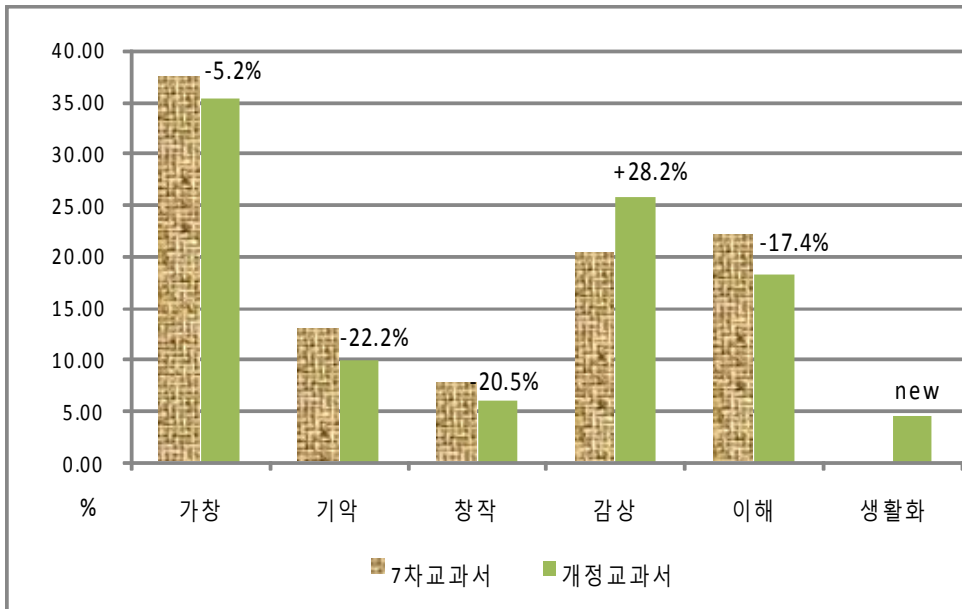
7차 교과서	활동				이해
	가창	기악	창작	감상	
교학사	33.33	11.11	11.11	16.67	27.78
동진음악출판사	35.29	17.65	5.88	29.41	11.76
두산	53.85	0.00	7.69	30.77	7.69
성안당	40.00	13.33	6.67	20.00	20.00
세광음악출판사	45.00	35.00	5.00	5.00	10.00
아침나라	40.00	0.00	15.00	20.00	25.00
지학사	26.92	15.38	11.54	23.08	23.08
천재교육	33.33	6.67	0.00	20.00	40.00
태성	27.78	16.67	5.56	16.67	33.33
평균	37.28	12.87	7.61	20.18	22.07

〈표 13〉 개정 7차 교과서별 국악과 양악의 분포비율(%)

개정 교과서	활동				이해	생활화
	가창	기악	창작	감상		
금성출판사	39.13	17.39	4.35	34.78	4.35	0.00
더텍스트	41.18	11.76	8.82	14.71	11.76	11.76
미래엔컬처그룹	27.27	9.09	4.55	22.73	36.36	0.00
법문사	31.58	10.53	10.53	15.79	21.05	10.53
성안당	39.47	7.89	5.26	23.68	21.05	2.63
세광음악출판사	35.71	10.71	7.14	32.14	10.71	3.57
태성	30.00	5.00	0.00	40.00	20.00	5.00
현대음악	38.46	7.69	7.69	23.08	20.51	2.56
평균	35.35	10.01	6.04	25.86	18.23	4.51

7차 교육과정의 경우, 이해와 활동영역의 비율면에서는 이해 영역이 22.07 %로, 77.93 %인 활동 영역과 비교하였을 때 활동 영역이 크게 나타났으며 활동 영역 중에서는 가창 (37.28%), 감상 (20.18%), 기악(12.87 %), 창작 (7.61%) 순으로 가창 영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창작부분의 비중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되었다.(〈표12〉,〈표13〉)참조

반면, 개정 7차 교육과정의 경우, '생활화'라는 새로운 영역이 추가됨에 따라 다른 영역의 비율이 조금씩 줄어들었다. 이해와 활동영역의 비율면에서는 이해 영역이 22.07 %에서 18.23%로, 77.93 %이었던 활동 영역이 77.27%로 활동 영역은 그리 많이 줄어들지는 않아 이해영역의 상당부분이 생활화로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활동 영역 중에서는 가창 (35.35%), 감상 (25.86%), 기악(10.01 %), 창작 (6.04%) 순으로 가창 영역은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여전히 창작부분의 비중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여기서, 특이한 사항은 모든 영역이 줄어든 상황에서 감상영역은 20.18%에서 25.86%로 오히려 늘어났다. 7차 교육과정과 개정 7차 교육과정의 영역별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다.



[그림 2] 7차 교과서와 개정 교과서의 영역별 증감내역

교과서별로도 차이가 많아 ‘더텍스트’와 ‘법문사’는 각각 11.76%와 10.53%가 새로운 ‘생활화’영역으로 상당부분 편성되었으나, ‘금성출판사’와 ‘미래엔컬처그룹’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영역별로 교과서간 차이도 많아서 ‘태성’은 감상영역이 40%로 매우 높은 반면 더텍스트는 14.71%로 가장 적게 편성되었다. 더군다나, ‘태성’ 교과서는 감상영역이 가장 높은 반면 창작영역은 하나도 편성하지 않아 영역별로 심한 차이를 나타냈다. (〈표12〉,〈표13〉 참조)

위와 같이 7차 교육과정과 개정 7차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전체 교과서의 세부적인 내용을 분석한 결과 양악과 국악에 대한 전체 비중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으나, 국악 부분에 대해서 살펴본 바로는 교과서별 감상, 창작, 기악 부분에 상당한 편차를 여전히 보이고 있으며 이는 특정 교과서를 선택한 학생들의 교육에 따른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을 짐작케 한다. 따라서 교과서를 편집할 때 외면적으로 상당히 양악과의 비중뿐만 아니라 국악의 세부적인 영역에서도 고르게 분포되어야 할 것이다.

IV. 음악 교과서의 국악 창작곡 분석

1. 제7차 교과서별 국악 작곡 분석

중학교 2학년 창작영역 내용을 각 9종 교과서를 바탕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즉흥 연주하기, 변주, 가사에 어울리는 곡 만들기, 간단한 현식의 곡 만들기, 기악반주, 악곡의 특징에 맞게 악기와 목소리를 선택하여 곡 만들기, 발표하기, 평가하기 등으로 내용이 구성되었다(최성희, 2005:23).

(1) 교학연구사

서양작곡 4쪽, 국악작곡 2쪽이 수록되어 있다. 서양작곡은 조바꿈의 간단한 형식의 곡만들기와 동기를 이용한 두도막 형식의 곡 만들기과 주어진 가사에 맞는 가락짓기, 화음으로 제재곡 반주, 리듬 반주 만들기가 수록되어 있다. 국악작곡은 변형 장단 만들기, 가사짓기가 수록되어 있다.

불어라 봄바람은 조바꿈 가락짓기형식으로 기록되어 있고 기다리는 마음은 동기를 이용한 두도막 형식의 곡 만들기가 수록되어 있다. 또한, 다양한 악기를 이용한 리듬 반주 만들기는 카프리섬과 송어가 수록되어 있다.

국악작곡은 변형 장단 만들기로 천안삼거리와 오봉산 타령이 수록되어 있고 즉흥 가사 짓기로는 신고산 타령이 수록되어있다.

(2) 도서출판 태성

서양작곡 1쪽, 국악작곡 1쪽이 수록되어 있다. 서양작곡은 모듈별로 혼합박자에 어울리는 리듬 만들기가 수록되어 있다. 국악작곡은 민요들을 자유롭게 사용하여 합주곡 만들기가 수록되어 있다.

희망의 노래는 리듬 만들기 식의 가락짓기가 수록되어 있고 물에 비친 하늘은 합주곡 만들기 형식으로 수록되어 있다.

(3) 동진음악출판사

서양작곡 1곡, 국악작곡 1곡이 수록되어 있다. 서양작곡은 소리로 음악만들기, 국악작곡은 민요풍의 가락짓기가 수록되어 있다.

(4) 성안당

서양작곡 4곡, 국악작곡 1곡이 수록되어 있다. 서양작곡은 못갓춤마디 가락짓기와 두도막 형식 가락짓기, 묘사음악 만들기, 음악극 만들기가 수록되어 있다. 국악작곡은 전래동화에 가락붙이기가 수록되어 있다.

(5) 세광

서양작곡 3곡, 국악작곡 1곡이 수록되어 있다. 서양작곡은 순차진행과 도약진행 형식의 곡 만들기과 라단조의 주제가락 변주하기, 용어와 기호를 이용한 주제가락짓기가 수록되어 있다. 국악작곡은 변형 장단짓기가 수록되어 있다. 연가는 순차진행과 도약진행 형식으로 간단한 가락짓기가 수록되어 있고, 용어와 기호를 이용하여 주제 가락짓기는 성자들의 행진으로 수록되어 있다. 국악작곡은 변형 장단짓기로 옹헤야가 수록되어 있다.

(6) 두산

서양작곡 2곡, 국악작곡 1곡이 수록되어 있다. 서양작곡은 한도막 형식의 가락짓기와 두도막 형식의 악곡만들기가 수록되어 있다. 국악작곡은 조건에 어울리는 가락짓기가 수록되어 있다.

한도막형식의 가락짓기는 자장가가 수록되어 있고 조건에 맞추어 가락짓기는 옹헤야가 수록되어 있다.

(7) 아침나라

서양작곡 4곡, 국악작곡 3곡이 수록되어 있다. 서양작곡은 반주와 변주곡 만들기, 응원가, 그림보고 가락짓기, 시에 알맞은 가락짓기가 수록되어 있다.

국악작곡은 민요풍 가락짓기, 메기고 받는 부분의 가락짓기, 장면에 어울리는 가락짓기가 수록되어 있다.

목동의 노래는 그림보고 가락짓기식으로 수록되어 있고 시에 알맞은 가락짓기로는 side by side 가 수록되어 있다.

국악작곡은 한오백년이 민요풍 가락짓기 형식으로 수록되어 있고 남도민요의 특징인 메기고 받는 부분의 가락짓기는 꽤지나 칭칭나네가 잘 반영되어 있다. 또한, 장면에 어울리는 음악 만들기로는 진도아리랑이 수록되어 있다.

(8) 지학사

서양작곡 5곡, 국악작곡 3곡이 수록되어 있다. 서양작곡은 가사에 어울리는 곡 만들기, 환경곡 만들기, 오스티나토에 의한 즉흥곡 만들기, 가사에 어울리는 화성 반주짓기, 컴퓨터 음악 만들기가 수록되어 있다. 국악작곡은 가사에 어울리는 곡 만들기, 민요풍 가락짓기, 여러 가지 악기에 알맞은 선율 변주하기가 수록되어 있다.

가사에 어울리는 곡 만들기 형식으로는 자장가가 수록되어 있고, 생활에 많이 쓰이는 환경곡 만들기는 눈길에 수록되어 있다. 또한 넬리 블라이는 오스티나토 즉흥곡 만들기로 반영되어 있다.

국악작곡은 여러 가지 악기에 알맞은 선율 변주하기로 남도 방아타령이 수록되어 있다.

(9) 천재교육

서양작곡 3곡만 수록되어 있다. 가사에 어울리는 곡 만들기 2곡과 한도막형식의 가락짓기가 수록되어 있다.

가사에 어울리는 곡 만들기는 봄노래와 별이 수록되어 있고 한도막형식 가락짓기는 슈베르트 자장가가 수록되어 있다.

이와같이 교과서별로 분석을 한 결과 도서출판 태성, 지학사와 아침나라

출판사는 즉흥내용 연주를 가장 많이 제시하고 있으며, 주제 변주하기는 세광, 두산, 지학사, 아침나라에서 가락변주하기로 제시되어 있고 대부분의 출판사는 다루고 있지 않다. 가사에 어울리는 곡 만들기는 대부분의 출판사에서 다루고는 있지만 동진음악 출판사, 성안당, 세광음악 출판사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형식에 어울리는 곡 만들기는 교학연구사, 도서출판 태성, 두산, 천재교육에서만 다루어지고 있다. 곡에 어울리는 기악반주 만들기는 교학연구사, 성안당, 지학사, 아침나라에만 수록되었다. 악곡의 특징에 맞게 악기와 목소리를 선택하여 창의적인 곡 만들기는 두산, 천재교육, 교학연구사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대부분 다른 출판사에서 한 부분씩 수록되었다.

모든 교과서의 창작활동은 한 활동으로 치우쳐 있었으며, 각 활동이 골고루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흥 연주활동과 평가하기 활동이 가장 많이 다루어지고, 변주하기와 기악 반주 만들기는 다른 영역에 비해 학습 자료수가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다.

2. 개정 교과서별 국악 작곡 분석

제7차 교육 개정안의 국악 세부 영역의 분포와 그 내용에 대한 개정사항이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본 장에서는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을 적용한 현재 중학교 2학년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특히 과거의 교과서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살펴 본 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통해 현재 개정된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현재 교과서만을 분석하기 보다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국악 교육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살펴 보고 그 결과를 현재 교과서와 비교하고자 한다.

대략적으로 살펴본 바로는 현재의 개정안을 따른 현재의 교과서에서도 문제점들이 내재되어 있었으며 이는 제7차 교육 개정안의 문제를 반영하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었다. 특히 국악의 전체 영역에 대한 비교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었으나 각 출판사별 개정된 교과서에서 창작 분야에 대한 현재 상황을 분석하여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특히 창작 분야에서는 출판사별 교과

분량이나 지도 분야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나타나 있어 교과서별 지도에 따른 국악의 교육에 대한 편차가 너무 커 시급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래에서는 출판사별 국악과 서양 창작 분야를 구체적으로 그림과 함께 제시하였다. 아래에서는 각 교과서별 창작 영역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서양 창작 영역과 비교 분석한 결과이다.

(1) 법문사

법문사에서는 서양 작곡이 2페이지에 걸쳐 수록되어 있었고, 국악 작곡 또한 2페이지에 분량을 가지고 있었다. 서양 작곡은 가락짓기와 리듬을 이용한 환경 곡을 만들기가 수록되어 있었고 국악 작곡은 국악과 창작 국악의 비교와 선율 만들기가 수록되어 있다. 법문사의 교과서에서는 다른 교과서와 다른 특징이 있었는데 특히 창작에 대한 직접 교육이전에 국악과 창작 국악과의 차이점을 학생들이 토론할 수 있게 주제를 선정하고 교사가 설명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자칫 고전의 국악에만 치우치기 쉬운 학생들의 선입견을 배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은 구성이었다. [그림 3]에는 서양 작곡에서 환경 곡을 만들어 보는 예시를 제시하였다. [그림 4]에서는 서양 작곡에서 간단한 가락 짓기를 소개하고 있었다. 또한 서양 음악에 대해서는 리듬꼴을 제시하여 기본적인 리듬꼴을 만들어 볼 수 있었으나 그에 비해 국악은 [그림 5]에서 나타나 듯이 국악과 창작 국악의 비교 토론을 실고 있으며, [그림 6]에서는 선율을 직접 지어보는 부분이 있었으나 각 악기별 음역을 제시하지 못해 아쉬운 점이 있었고 여러 악기에 대한 가락짓기가 있어 합주의 형태도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음 리듬을 이용하여 모듬별로 환경 곡을 만들어 보자.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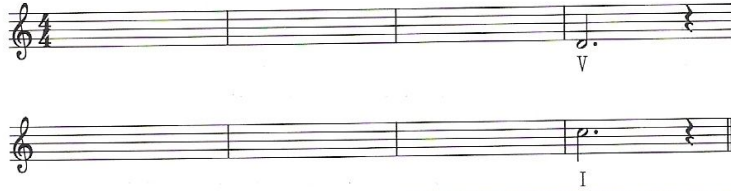
아름다운 초록별 지구가 힘들어하고 있어요
I IV I V

우리 모두 환경사랑 아름다운지구 지켜줘요
I IV I V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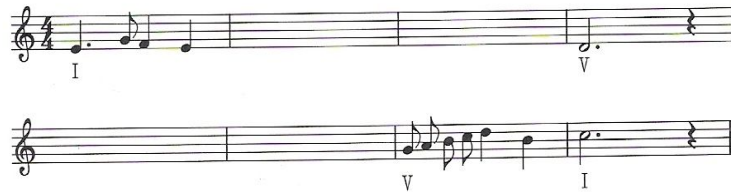
[그림 3] 범문사 서양 창작 예시

5 가락 짓기

1) 형식을 정한다(한도막 형식, 두도막 형식 등).



2) 한도막 형식의 곡이나 두도막 형식의 4번째 마디는 반마침(I-V, IV-V)을, 곡이 끝나는 마지막 부분은 바른마침(V-I)을 많이 사용한다.



3) 곡이 너무 단순하지 않고 아름답고 자연스럽게 되기 위하여 차례가기와 뛰어가기 등으로 음을 진행하고 비화성음을 사용한다.




4) 다양한 리듬을 사용하여 곡을 완성한다.

[그림 4] 범문사 서양 작곡 - 가락짓기

③ 국악과 창작 국악을 비교 감상하고 다른 점과 같은 점을 토론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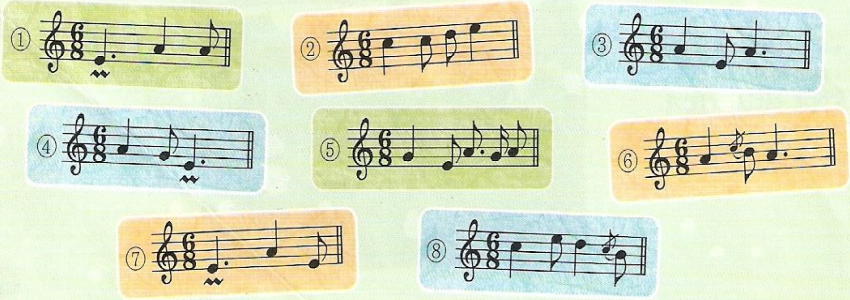
	다른 점	같은 점
국악	1. 예전부터 전해져 오는 우리 음악 2.	1. 2.
창작 국악	1. 현대에 와서 새롭게 만들어진 국악 2.	3.

[그림 5] 범문사 국악 토론 부분

 창작

1 각 마디들을 자유롭게 연결하여 국악 선율을 만들고(피리, 대금, 단소 등) 구음으로 부르거나 악기로 연주해 보자.

(- - - - - -)



[그림 6] 범문사 국악 창작 악기 연주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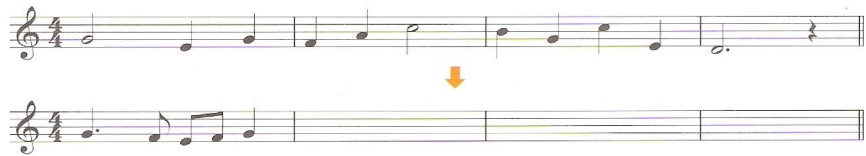
(2) 대한 교과서

대한 교과서는 서양 작곡이 5페이지에 많은 분량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국악 작곡 부분은 1페이지만 수록하고 있다. 서양 작곡은 화성 음과 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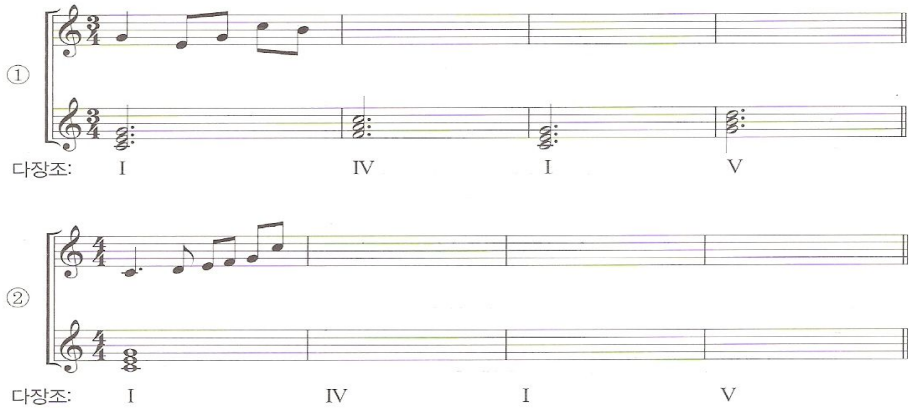
밖에 음을 구분한 작곡 창작과 가락과 음악간의 관계를 고려한 가락짓기가 수록되어 있었다. 국악은 가사를 바꾸어 부르는 개사 부분이 수록되어 있었다. [그림 7]는 서양 작곡에서 화음 밖에 음을 이용한 반마침 가락을 만들어 종짓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시다.

[그림 8]에서는 서양 음악 작곡에서 화음 진행의 배경이 되는 간단한 가락 짓기가 수록되어 있었다.

활동 2 주어진 가락에 화음 밖의 음을 넣어 가락을 아름답게 꾸며 보자.



활동 3 화성음 사이에 화음 밖의 음을 적절히 넣어 반마침으로 마치는 가락을 만들어 보자.



[그림 7] 대한교과서 서양 가락 짓기 예시

이에 비해 국악은 [그림 9]과 같이 개사 부르기 정도만 실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대한 교과서에는 서양 창작 부분은 매우 충실하게 반주법, 화성 등이 제시되고 있었으나, 국악에 대해서는 간단한 가락짓기 조차 나타나 있지 않고 단지 개사에 관한 가사 바꾸어 부르기만 나타나 있어 창작면에서 부족한 점이 비교적 많았다.

3

주요 3화음과 딸림7화음이 화음 진행의 배경이 되는 가락을 작곡해 보자.

- ① 네 번째 마디에 반마침, 여덟 번째 마디에 바른마침이 오도록 큰악절의 화음 진행을 만들어 보자.

	마디 1	마디 2	마디 3	마디 4
첫째 단	I			V(반마침)
둘째 단	I		V ₇	I(바른마침)

- ② 으뜸화음을 배경으로 하는 아래의 동기에 이어, 위에서 만든 화음을 배경으로 자연스러운 가락을 작곡해 보자.

다장조:

[그림 8] 대한교과서 화음 가락 작곡 예시

5 현재 재건되고 있는 송례문을 주제로 해서 가사를 바꾸어 불러 보자.

예 이천팔 년 초 불에 타 사라졌던 국보 1호 송례문 어서 돌아오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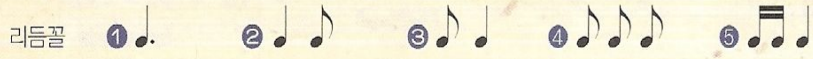
[그림 9] 대한교과서 국악 창작 부분 - 개사

(3) 더 텍스트

더 텍스트의 교과서는 서양 작곡이 2페이지 분량을 수록하고 있으며 국악 작곡은 3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다. 서양 작곡은 두도막 형식의 반 노래 짓기와 관현악 악보 제시가 나타나 있고, 국악 작곡은 다양한 장단꼴 만들기, 동부 민요조 가락 짓기, 변형 장단 만들기가 나타나 있다.

본 교과서에서는 음악에서 창작, 즉 작곡에 대한 부분이 다른 교과서에 비해 분량이 적었으며 서양 음악에 대해서는 관현악 악보를 제시하였으나, 국악에 대해서는 관현악 악보를 제시하고 있지 않아 다소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림 10]에는 국악 가락짓기에서 단소로 연주하는 부분이 나타나 있으나 단소의 음역을 제시하였다면 학생의 입장에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11]에는 서양 작곡의 관현악 악보를 제시하였다. [그림 12]에서는 우리반 노래를 작곡하는 것은 체육행사나 기타 교내 행사 등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우수한 예시라고 할 수 있다. 본 교과서에서는 다른 교과서와 달리 국악 작곡 부분이 서양 작곡에 비해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어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었다.

다음 노래 가사에 맞추어 각자 만든 장단을 붙여 보자.



동개동개 동개아 / 두둥둥둥 동동개아 / 날아가는 학선이나 / 구름 밑에 신선이나 / 자장 자장 자장 / 겁둥이도 잘 자더라

동 개 동 개 동 개 야

동부 민요의 특징을 살려 가락을 만들고, 단소로 연주해 보자.

[그림 10] 더텍스트 국악 가락짓기와 단소 연주

관현악 악보(모음 보표)



보표

보표란 음자리표가 있는 오선이다.

작은보표 : 1개의 보표로 관악기, 현악기 등의 독주 악기용 악보.

큰보표 : 높은음자리 보표와 낮은음자리 보표를 하나로 묶어 놓은 보표. 피아노 악보, 합창 악보.

모음 보표 : 합창이나 합주 등을 할 때 각 파트의 보표를 한꺼번에 나타내어 한눈에 전체 악보를 볼 수 있도록 한 악보.

[그림 11] 더텍스트의 서양 음악 관현악 악보

자, 그럼 우리 반 노래를 직접 지어 보자.

[그림 12] 더텍스트의 서양 작곡 부분 - 예시

(4) 성안당

성안당의 교과서에는 서양 작곡과 국악 작곡이 각각 2 페이지씩 수록되어 있다. 서양 작곡은 랩 음악 만들기와 한 도막 형식의 가락 짓기가 수

록되어 있고, 국악 작곡은 5음계의 가락 짓기와 변형 장단을 만들어 연주하기, 모듬별 동시 연주가 수록되어 있다. 성안당의 교과서에서도 창작 관련 부분의 비중이 높지 않았으며 이는 서양 음악도 마찬가지였다. [그림 13]은 서양 작곡에서 한 도막 형식, a, a', b, a"의 진행을 이용한 가락 짓기를 수록하고 있었다.

반주에 어울리는 가락을 만들어 보자.

(반마침)

I I ii V

(바른마침)

I IV I V I

주어진 시에 맞는 한도막 형식의 가락을 만들어 보자.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 오면
산 위에 진달래가 불어 오지요.

봄 바람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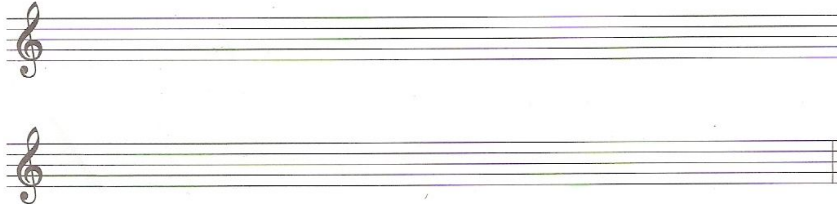
불 어 오 지 요

[그림 13] 성안당 서양 음악 가락 짓기

[그림 14]에서는 요즘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랩 음악과 서태지의 음악을 함께 실어 특징이 있었다. 국악은 일반적으로 5음계를 가지고 있고, 이는 평조와 계면조로 나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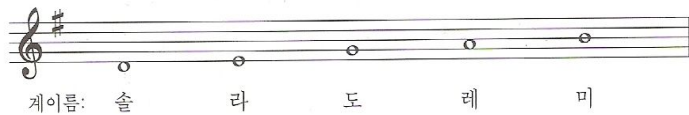
3 랩 음악 만들기

- ① 학교와 친구' 를 소재로 라임을 맞춘 짧은 노래 가사를 짓는다.
- ② 강박으로 표현해야 될 부분을 정한다.
- ③ 랩 음악을 완성하고 악보를 그린다.



[그림 14] 성안당의 랩음악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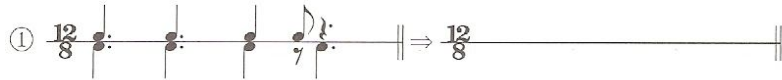
2 소금 장수에서 사용된 5음계를 알아보고 가락 짓기 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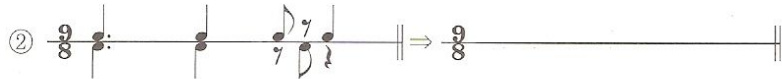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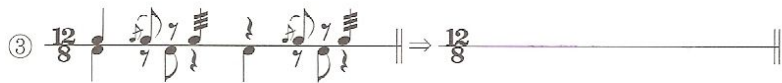
[그림 15] 성안당의 5음계를 이용한 가락짓기

[그림 15]에서는 평조를 이용한 가락 짓기를 수록하고 있다. 또한 [그림 16]는 국악에서 변형 장단을 이해하는 데 무릎 장단을 이용한 학습으로 기타의 악기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아 수업 준비나 학생의 참여도를 높이고 국악의 변형 장단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6]에서 모듈 1은 세마치 기본 장단을 제시하고 모듈 2는 세마치 기본 장단을 인용하여 아리랑 노래를 제시하였고, 모듈 3의 도라지 타령은 세마치 장단의 변형을 나타내는 아주 쉬운 예시이다.

2 주어진 기본 장단을 변형하여 그려 보고, 무릎장단이나 장구로 연주해 보자.

① 

② 

③ 

나아가기

■ 모듬별로 동시에 연주해 보고, 역할을 바꾸어 표현해 보자.

모듬 1 세마치장단 

모듬 2 아리랑 

모듬 3 도라지타령 

[그림 16] 성안당의 변형 장단

(5) 금성출판사

금성출판사의 교과서에는 서양 작곡이 2 페이지 분량을 수록하고 있고 국악 작곡은 1 페이지만 수록하고 있었다. 서양 작곡은 동기가 주어진 가락 짓기와 단조와 장조의 느낌 비교, 오스티나토 리듬 만들기가 수록되어 있고, [그림 17]에는 국악 작곡의 5음계 중 계면조의 제재곡에 대한 가락 짓기가 수록되어 있다.

제재곡의 가락을 기초로 하여, 가락 짓기를 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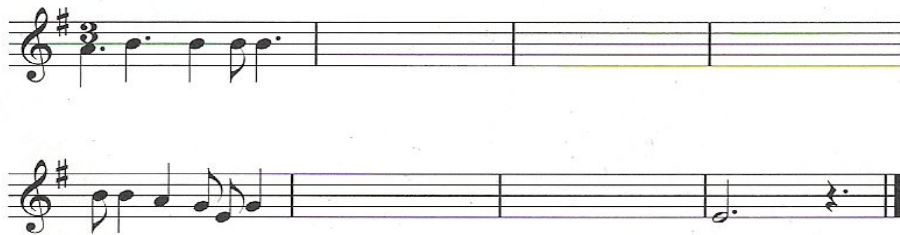
① 음계 : 

라 도 레 미 솔
단소 울명 林 無 潢 汰 沖

② 시작음 : 미, 끝음 : 라

③ 5음을 고루 사용하고 자연스러운 진행이 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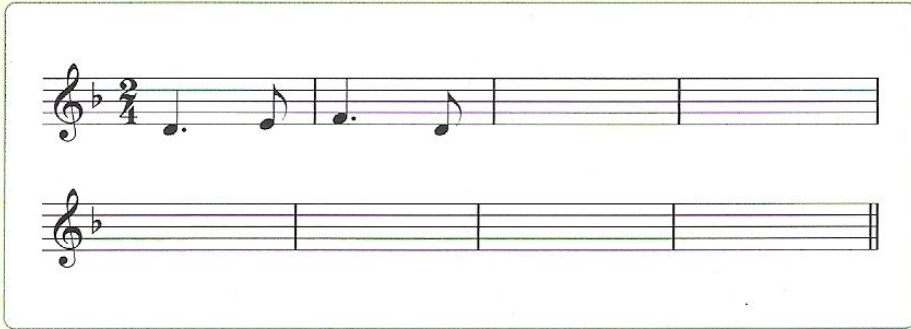
④ 제재곡에 많이 사용되는 가락의 진행과 리듬형을 모방하여 가락 짓기를 한다.



[그림 17] 금성 출판사의 국악 가락 짓기

[그림 18]에는 서양 작곡에서 단조에서 장조로의 느낌 변형에 대한 가락 짓기가 수록되어 있다. 본 교과서에서는 서양 음악이나 국악이나 그 비중이 창작 면에서는 상당히 낮은 편이었으며 단순히 가락짓기 정도만 나타나 있어 분량에서 아쉬움이 있었다. 하지만 한 도막 형식의 작곡법에 대해서는 국악 작곡이나 서양 작곡에서 적절히 잘 표현되어 있다. 또한 서양 작곡에서는 단조와 장조에 대한 변화를 학습할 수 있는 반면 국악에서는 평조에 대한 부분이 수록되지 않아 계면조와 평조와 같은 변화를 추가하였다면 양 음악 사이에 균형이 유지되었을 것이다.

동기에 어울리는 가락을 만들어 보자.



단조로 된 제재곡을 장조(같은 으뜸음조)로 노래해 보고, 그 느낌을 이야기해 보자.



[그림 18] 금성출판사의 단조에서 장조로 변형

(6) 현대음악

현대 음악의 교과서에서는 서양 작곡과 국악 작곡 모두 각각 3 페이지씩 수록되어 있었다. 서양 작곡은 평행 악절과 대비 악절 만들기가 나타나 있고, 단조와 장조의 가락 짓기, 랩 음악 만들기가 수록되어 있고, 국악 작곡은 민요풍 가락 짓기와 변형 장단 만들기, 정간보를 오선보에 기보하는 법이 수록되어 있다. [그림 19]에는 국악의 변형 장단 만들기가 나타나 있다. [그림 20]에는 말 리듬 만들기로 가사를 미리 제시하고 리듬꼴을 만들게 하는 작곡법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작곡법은 학생들에게 작곡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좋은 예시라고 할 것이며 또한 통속 민요로 알려진 경토리는 솔, 라, 도, 레, 미의 5음계를 사용하는 민요들에 사용되는 경토리 음계를 이용한 가락 만들기를 수록하고 있다.

본 교과서에서는 음악의 창작 부분에 대한 분량이 가장 많이 나타나 있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학습이 가능하게 잘 분배되어 있었으며 서양 작곡의 경우 장조, 단조 뿐만 아니라 랩음악에 까지 그 장르가 다양하였다. 국악에 대해서도 장단 만들기와 가락 짓기 등 여러 분야가 나타나 있었으나 그 비중에서 서양 음악에 비해 다소 부족한 점이 아쉬운 점이였다.

빈칸에 어울리는 변형 장단을 넣어 보자.

흐 - - 르 - 는 - 불 - - - - 으 - - - 은 -

[그림 19] 현대음악의 변형 장단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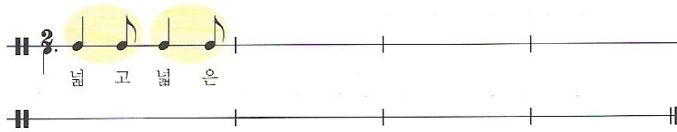
제시된 가사와 리듬 꼴을 이용하여 자연스러운 말 리듬을 만들어 보자.

가사
 넓고 넓은 밤하늘에 누가누가 잠자나 '누가누가 잠자나'
 하늘나라 아기별이 깜빡깜빡 잠자지 - 목일신

리듬 꼴의 예



말 리듬 만들기



가사의 음절에 어울리는 리듬 꼴을 찾아야 해.

경토리 음계를 이용한 가락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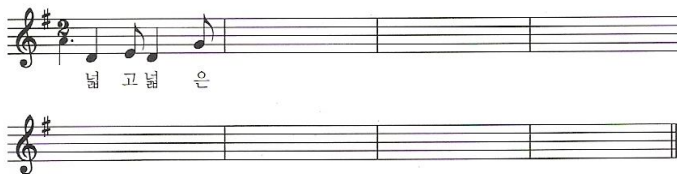
경토리 음계를 이용하여 가사에 어울리도록 가락을 만들어 보자.

1. 두 마디 단위로 호흡할 수 있도록 가락을 만든다.
2. 반복되는 가사에는 반복되는 가락이나 리듬을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3. 노래의 마지막 부분은 '술'이나 '도' 음으로 끝나도록 한다.

경토리 음계



가락 만들기



'넓고 넓은', '누가누가', '깜빡깜빡'의 가사가 반복되네!
 그럼 리듬, 가락도 반복하는 게 좋겠네.

[그림 20] 현대 음악의 민요 가락 짓기

정간보는 조선시대 세종이 최초로 창안한 동양 유량 악보이다. 우물 정(井)자 모양으로 상하좌우로 간(間)을 나누어 쇠가를 표시하고 그 안에 음높이를 알 수 있는 악보를 표시하는 기보법이다(이성천, 1996:71). [그림

21)는 정간보를 오선보에 기보하는 방법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학생들이 고악보를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다.

정간에 있는 음명을 보표에 적어 보자.

한 정간을 ♩ 한 박	한 정간이 2개로 나뉘면 ♩ 를 반으로	한 정간이 3개로 나뉘면 한 정간을 ♩로	'-'는음이 계속된다는 뜻
黃	黃 ① 太 ②	黃 ① 太 ② 黃 ③	黃 ① - 太 ②
太	黃 仲	黃 太 仲	黃 - 仲
仲	太 仲	仲 林 仲	仲 太 - -

‘풍년가’를 오선 악보에 옮겨 보자.

풍 - - 년 - 이 왔 - - 네

풍 - 년 - 이 왔 - - - - - - - 네 -

[그림 21] 현대 음악의 국악 정간보 옮기기

[그림 22]은 장조와 단조의 느낌을 알 수 있는 좋은 예시로 장조, 단조의 가락짓기와 장조의 가락짓기를 이해하고 변조의 작곡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직접 가사를 붙여 볼 수 있는 예시로 다양한 형태의 학습 참여가 가능할 것이다.

음악 만들기 장조와 단조의 가락 만들기

주어진 리듬을 이용해 다장조와 가단조의 가락을 만들어 보자. 가락이 완성된 후 가사를 붙여 노래해 보자.

장조는 '다' 음으로 시작한다.

단조는 '가' 음으로 시작한다.

단조의 끝 음

정조의 끝 음

다장조 음계

시작 음 또는 끝 음

다장조의 가락은 '다·마·사' 음 중 한 음으로 시작하고, '다' 음으로 끝난다.

가단조 음계

시작 음 또는 끝 음

가단조의 가락은 '가·다·마' 음 중 한 음으로 시작하고, '가' 음으로 끝난다.

[그림 22] 현대 음악의 장조 단조 가락 짓기

[그림 23]은 랩음악 만들기로 최근의 학생들의 취향을 반영한 것은 좋은 사례라고 할 것이나 가사나 제시되어 있었다면 더 쉬운 작곡법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음악 만들기 재미있는 랩 음악 만들기

랩 음악을 만들어 보자.

랩? 어렵지 않을까?

먼저 리듬부터 연습해 보구.....

다른 가사를 붙여서 연습해도 좋겠네. 리듬도 변형시켜 보구.

이번에는 주어진 리듬에 어울리는 새로운 가사를 만들어 보자.

왜 재밌다. 이젠 좀 더 멋지게 해보고 싶어.

새로운 가사도 만들고, 가사에 어울리는 리듬도 만들고... 목소리를 이용한 비트 박스에 맞추어 노래해 보자.

이런 가사는 어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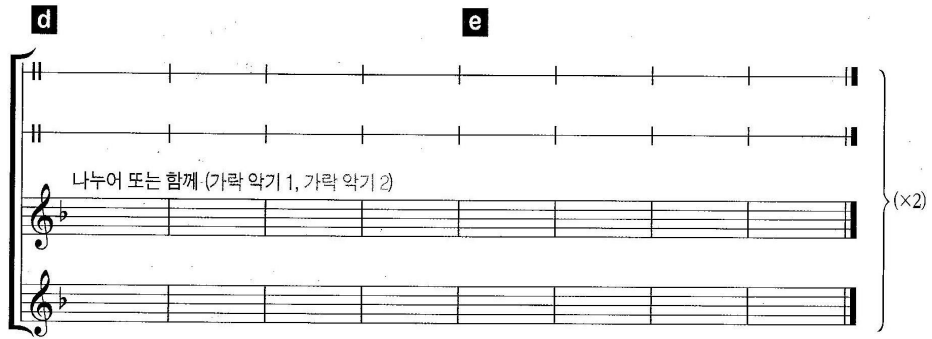
나는 매일 친구들과 노래를 하네
마음 모두 모아서 노래를 하네
신나는 노래 즐거운 노래
이 노래들은 언제나 힘을 준다네

친 구
우 린 친 구
마 음 맞 는 너 와 나 는
언제라도 함께 하는 너와나는 좋은 친구

[그림 23] 현대 음악의 랩음악 만들기

(7) 도서출판 태성

태성의 교과서에는 서양 작곡만 2 페이지를 수록하고 있을 뿐 국악 작곡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수록하고 있지 않았다. 본 교과서의 경우 국악에 대한 창작 부분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았고 서양 음악의 경우에도 단순한 가락 짓기와 두 도막 형식의 가락 짓기 정도만 나타나 있었다. [그림 24]에는 간단한 가락 짓기를 수록하고 있었다.



[그림 24] 태성의 서양 가락 짓기 부분

[그림 25]에서는 다른 교과서와는 달리 두 도막 형식의 가락 짓기를 수록하고 있었다. 두 도막 형식의 작곡법은 a, a', b, a'', c, c', a, a'''의 진행이며 제1 ~ 8마디는 한 도막 형식과 같다. 제2 부분에서는 자작 동기가 새롭게 나타나고 c의 리듬, 음정, 음형의 특징을 살려서 c'를 작곡한다. 다시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a를 그대로 재현시키고 a의 특징을 살려서 a''와 조금 다른 a'''를 작곡한다(나운영, 1980:44).

다른 교과서와의 비교에도 국악에 대한 비중이 현저히 낮아 교과서별 학생들의 수준 차이가 나타날 수 있어 형평성있는 교육을 위해 창작 부분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두도막 형식의 가락 짓기

계속

끝

다르게 시작

계속

끝

I
으뜸화음

IV
버금딸림화음

V
딸림화음

V7
딸림 7화음

[그림 25] 태성의 두도막 가락 짓기

V. 결론

우리나라의 음악교육에서 국악을 접목하고 학생들에서 국악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꾸준히 새로운 교육과정이 나타나고 있다. 중학교 교육 과정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국악에 대한 교육을 크게 강화시켜 왔으며, 최근에 새로운 교육 과정에 따른 현행 교과서가 발간된 상태이다. 하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체계적인 우리 음악인 국악 교육을 위해 서양음악과의 적절한 교육 시간을 어떻게 할애하고 운영해야 하는 지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특히 감상부분에 대한 연구는 상당 부분 진척된 상태이나 작곡과 같은 창작 영역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태이다. 음악 교육에서 이해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향후 우수한 국악인으로 발전을 위해서는 작곡과 같은 창작 부분에도 많은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 교육과정, 특히 중학교 2학년 음악 교과서를 분석하여 국악작곡과 서양작곡의 분포 및 이론측면에서 그 현향을 분석하고 제7차 교육과정과 개정교육과정에서 창작부분이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첫 번째 7차와 개정교과서의 양악과 국악의 분포도에서는 거의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제7차 교육과정의 가창, 기악, 창작, 감상이 고르게 반영되었는지를 분석한 결과 가창부분은 비율이 높은 반면 창작은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와 마찬가지로 7차 개정교과 과정의 노래부르기 악기연주하기, 음악 만들기, 감상하기, 표현하기에서도 작곡과 관련된 음악 만들기는 여전히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두 번째 2007개정교과 활동안에 추가된 생활화로 인해 서양작곡은 실생활에 응용되는 우리반 노래를 작곡하여 교내 행사때 불러보기와 간단한 형식의 곡을 작곡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음악듣기 등 실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이 추가된 반면 국악작곡은 7차와 마찬가지로 간단한 형식의 가락짓기, 5음 음계의 가락짓기 정도에 불과했다.

세 번째 해당분야에서 각 출판사별로 상당한 편차를 보였다. 특히 태성 교

과서는 국악 작곡의 분량은 전혀 없고 반면에 현대 음악교과서는 서양 작곡과 국악 작곡의 비율이 적절했으며 내용은 민요풍의 가락짓기와 변형장단 만들기, 또 정간보를 오선보에 기보하는 기초 가락짓기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있었다. 이는 해당 교과서만을 가지고 학습한 학생들 간에도 우리음악을 이해하는 이해도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고 교육의 참여도에서도 다를 수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보건대, 다음 교육과정에서는 출판사별 일관성이 부족한 부분을 반드시 지적하여야할 뿐만 아니라, 국악작곡의 내용부분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한다. 즉, 국악기 음역에 맞는 E^b 과 A^b 의 조성을 제시하여 기본적인 국악작곡을 접할 수 있게 해야 하며, 평조와 계면조의 음계를 제시하여 다양한 느낌의 곡을 쓸수있게 내용이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신이 작곡한 가락을 단소와 같은 악기로 연주하는 실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는 연계 교육이 이루어져야한다. 우리 음악에 있어서 기악이나 창작과 같이 학생들이 실제로 참여하고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고춘선, 홍종건 (2005). **중학교 음악 1,2,3**.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 교육부 (1997).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 서울: (주)대한교과서.
- 교육부 (1999). **중,고등학교 음악교육과정 해설**. 서울: (주)대한교과서.
- 김미숙 (2010). **중학교 음악2**. 서울: 더텍스트.
- 김선경 (2006). **현행 음악교과서의 창작 국악곡 분석 연구: 중학교 1학년 교과서를 중심으로**. 미발행 석사학위 논문,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정숙 (2010). **중학교 음악2**. 파주: 법문사.
- 김준수, 이동훈 (2005). **중학교 음악 1,2,3**. 서울: 동진음악출판사.
- 나운영 (1980). **작곡법**.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 류선희 (2007). **구성주의 교수-학습 원리를 적용한 창작 국악 지도 방법 연구**. 미발행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방금주, 김용희 (2000). **음악 창작 아카데미**. 서울: 학문사.
- 백병동 외 4명 (2005). **중학교 음악 1,2,3**. 서울: (주)천재교육.
- 서한범 외 3명 (2005). **중학교 음악 1,2,3**. 서울: 도서출판 태성.
- 양종모 (2010). **중학교 음악2**. 서울: 금성출판사.
- 유덕희 (1998). **예능교육**.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유상철 (2010). **창작국악 지도방안 연구: 중학교 3학년 감상자료 활용을 중심으로**. 미발행 석사학위 논문, 경북대학교.
- 유진주 (2010). **제7차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1학년 음악 교과서 국악부분 비교분석**. 미발행 석사학위 논문, 성신 여자 대학교.
- 윤경미, 문진 (2005). **중학교 음악 1,2,3**. 서울: (주)아침나라.
- 윤경미 (2010). **중학교 음악2**. 서울: 현대음악.
- 윤명원, 김영희 (2005). **중학교 음악 1,2,3**. 서울: (주)지학사.
- 이성천 외 3명 (1996). **알기 쉬운 국악개론**. 서울: 도서출판 풍남.
- 이흥수 외 3명 (2005). **중학교 음악 1,2,3**. 서울: (주)두산.

- 장기범 (2010). **중학교 음악2**. 서울: 대한교과서.
- 조창제 (2005). **중학교 음악 1,2,3**. 서울: 교학연구사.
- 주대창 (2010). **중학교 음악2**. 서울: 도서출판 태성.
- 정육희 (2010). **중학교 음악2**. 서울: 성안당.
- 최필립 외 3명 (2005). **중학교 음악1,2,3**. 서울: 성안당.